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事務機械 發明의 선두주자 大進機械工業社 姜泰旭 사장



〈姜泰旭 사장〉

각종 첨단 사무기의 홍수 속에서
도 등사기 고유의 역할을 강조하여
등사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대진기계공업사의 姜泰旭 사장은
최신의 사무기들이 판을 치는 요즘
에도 등사기를 만들면서 등사기 고
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4년부터 등사기 국산화를
위해 등사기 개발에 몰두해온 姜사
장은 등사기로만 7개의 공업소유권
을 갖고 있다.

『원래 등사기는 미국과 영국이
강하죠. 60년대 당시만해도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제품을 모방해 비웃

한 등사기를 만드는게 유행이었습
니다. 그러나 외국제품은 자기네
잉크, 종이, 규격을 사용해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았었습니다. 때문
에 잉크, 종이질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국식 등사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첫 직장생활을 사무기기 회사에서
한 것이 인연이 돼 한국형 등사기에
관심을 갖게됐다는 姜사장은 이 등
사기로 연간 약 20만달러어치를 수
출하고 있다.

이 등사기는 수동식으로 손잡이
를 돌리면서 작동시킨다. 그러나
속도는 전동식과 별차이가 없다고.
250매 정도는 5분이면 충분하다.
가격은 29만5천원.

원고의 종류·두께와 지질에 따
라 인쇄선명도를 알맞게 조절하는
조절장치가 있고 또 인쇄위치를 종
이의 이동없이 조절할 수 있다. 또
인쇄된 매수를 만단위까지 표시해
주는 카운터가 부착돼 있다.

지난 74년 첫 실용신안(16316호)
을 획득했고 그 동안 2개의 특허를

더 뒀다. 85년 제20회 발명의 날에
는 사무기기 국산화에 발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특
허를 받은 후에도 바로 시판하지
않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델을 6
번이나 바꾸는 등 나름대로 완벽을
기해 3년뒤인 78년부터 시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요 고객으로는
학교, 학원,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관공서 및 군부대 등.

『사무자동화로 각종 사무기기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
각이지만 한 사무실에서 사무기기
를 짜입새 있게 갖추려면 최소한 4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자기,
복사기, 계산기와 등사기 등 4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일반업무가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姜사장은 최근엔 등사기외에 문
서세단기를 개발 시판하고 있다.

정보시대에 부주의로 자칫 누출
되기 쉬운 각종 서류를 폐기처분할
때 이 문서세단기에 넣으면 완벽하
게 절단해 준다. 〈표지 참고〉 <88>

第33回 發明教室

11月 8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11月 8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33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시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번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는 프린스토이 柳注錫 社長과 大進機械...○
- ...工業社 姜泰旭 社長の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
- ...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가주려 紹介한다.○

育 기구의 외길 發明人

프린스토이 柳注錫 社長

차양모자를 비롯해 50여종의 特許를 갖고 있는 프린스토이 柳注錫 社長.

그는 發明家라기 보다 實業家로 더 알려져 있다.

프린스 트랙터·프린스 사이클·프린스氣車 등 주로 「프린스」(PRINCE)라는 말이 붙은 일련의 育兒 기구를 만들어내는 「프린스토이」의 대표이다.

柳社長이 發明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年前. 낚시를 하면서 바람이 약간만 스쳐도 흘러내리는 손수건 대신 조금 두꺼운 종이로 모자를 만들어 쓰면 어떻까하고 생각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종이모자가 1967年 무역박람회에서 불티나게 팔리는데 이어 축구경기장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柳社長은 머리를 싸매고 發明에 몰두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피눈물나는 硏究였고, 나쁜말로 일컫자면 미친 사람 같았다.

柳社長은 오로지 들전후로부터 3

~4세 이르는 유아들을 위한 놀이 기구와 발육을 돕는 育兒기구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柳社長의 들날 외조부되시는 분이 1천명이 정성을 다해 1字씩 쓴 천자문(千字文)을 주셨는데 柳社長은 어른이 되면서부터 생일 때마다 외손자에 대한 외할아버지의 지극한 정성을 잊지 못해 『나도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는데...』하고 결심을 굳혔고 끝내는 유아를 위한 發明企業人이 되었다.

『흔히들 發明家가 生産業體를 차리면 큰 돈이나 버는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황금덩어리 위에 앉는다 할지라도 發明家는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자신을 지켜 공익의 본분을 잊어선 안됩니다.』

현재 日本등 外국의 特許도 몇개 갖고있는 柳社長은 유아용 그네와 또한 그네와 침대 및 유모차까지 결합 育兒기구를 만들어 이 땅의 젊은 엄마들로 부터 대단한 호평을



〈柳注錫 社長〉

받고 있다.

이렇게 무엇이 잘된다 싶으면 남의 特許까지 침해해 그것도 불량품을 양산하는 것이 일부 企業의 고약한 버릇이고 보니 柳社長 역시 74년에는 뜻하지 않는 곤욕도 치러야 했다.

1천명이 千字文을 쓰는 마음으로 육아기구를 發明하고 生産하는 柳注錫 社長. 이제 그가 수출하는 발육기구와 완구는 10여 종류로서 독일 및 영국을 포함한 유럽 방면과 중남미 등의 미주지역, 日本·동남아지역까지 수출이 되고있다. <○>